


 금융위원회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size: 2em; font-weight: bold;">보 도 참 고 자 료</div>				
 금융감독원	<b>보도</b>	<b>배포 시</b>	<b>배포</b>	2022.3.2.(수)	
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이 수 영(02-2100-2650)	<b>담 당 자</b>	정 훈 사무관(02-2100-2653)
	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고 영 호(02-2100-2660)		홍연제 사무관(02-2100-2663)
	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 조 철 (02-3145-7010)		손기숙 팀장(02-3145-7030) 이상민 팀장(02-3145-7035)

## 제 목 : NH투자증권, 하나은행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

- 금융위원회는 '22.3.2(수) 제4차 정례회의'에서 NH투자증권 및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, 과태료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.
- 금번에 의결된 NH투자증권에 대한 조치는 「자본시장법」 위반사항에 대한 것으로, 「금융회사지배구조법」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은 법리검토 등을 거쳐 추후 심의될 예정입니다.

### 1. 조치개요

□ 금융위원회는 금일 '22년 제4차 정례회의'에서

- NH투자증권 및 하나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, 과태료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.

#### 참고 : 진행경과

- ① 금융감독원은 NH투자증권 및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발견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총3회('21.2.19 ~ 3.25) 개최하여 조치안을 심의
-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NH투자증권에 대해 3회('21.8.18 ~ 12.1)에 걸쳐 「자본시장법」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심의
- ③ 금융위 소위원회는 NH투자증권에 대해 총6회('22.1.6 ~ 3.2), 하나은행에 대해 총4회('22.1.6 ~ 2.10)에 걸쳐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

## 2. 주요 조치내용

□ **(NH투자증권)** 금융위원회는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부당권유 금지 위반,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, 투자광고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 「자본시장법」 위반으로,

- 기관 업무 일부정지\* 3월, 과태료 51억7천2백8십만원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.

\* (정지대상)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(사모펀드 신규판매)

□ **(하나은행)** 옵티머스 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·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「자본시장법」 위반으로,

- 기관 업무 일부정지\* 3월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.

\* (정지대상)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

## 3. 향후일정

□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\*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입니다.

\* (임원) 주의적 경고, 주의 (직원) 정직, 감봉, 견책, 경고, 주의

□ 한편, NH투자증권 관련 「금융회사지배구조법」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,

-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입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  
[prfsc@korea.kr](mailto:prfsc@korea.kr)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